



'고향이야기'

'가족이야기'

황영성 이번엔 고향을 담다

15일~ 내달 2일까지 서울 갤러리 현대서 개인전
70세 앞두고 선보인 꾸밈없는 ‘동심의 세계’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노마드(Nomad)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고향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중진 서양화가 황영성(69·조선대 명예교수·사진) 회백이 더욱 완숙해진 페치로 그려낸 ‘고향’을 선사한다. 오는 15일~5월2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 현대.

이번 전시에서 그는 50년간의 화업 가운데 1970년대 작품부터 최근에 창작한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2006년 정년을 한 뒤 작품 창작에만 몰두했던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완숙해진 예술 훈을 풀어 놓는다.

특히 ‘가족’에 대한 종전 작업을 ‘고향 이야기’로 확대시켜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족이 어우러진 더욱 풍부해진 작품을 선사한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70세(종심·從心)를 앞두고 선보인 이번 작품에는 욕심과 꾸밈이 없는 동심의 세계가 느껴진다.

산과 부엉이, 소, 사람, 나무 등이 아무 거리낌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강한 생명력도 느껴진다.

자연의 색을 짙은 컬러의 사용과 눈에 띈다. 진한 녹색과 연두색을 즐겨 써, 고향들녘의 풍성함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회색빛 블러도 점검에 형상화했다.

그는 “다양한 색과 기법의 실험으로 현대 회화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번 작품들은 더욱 촌스러운 것이 컨셉트이다. 고향은 세련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출품작들은 더욱 투박하고, 질박한 고향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씨는 “색채 조화와 대비는 음색의 조화와 대비로, 시각적인 데서 청각적인 뻔한 전환이 이뤄졌다. 이제 그의 화면은 화려한 음색의 어우러짐 보다 무겁고 낮은 음색의 은은한 화음을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0년대 말 마야, 잉카 등의 문화를 접한 뒤 ‘가족’에 대한 종전 작업을 ‘세계로 열린 가족 이야기’로 확대시켰다. 그 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활발한 작품발표를 통해 국제 회화의 주목과 평가를 이끌었다.

사람, 꽃,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는 점차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25회 문예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0년 서울 롯데화랑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난 2004년 대구시가 선정하는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2-519-0800.

/오광수기자 kroh@kwangju.co.kr



시나위 가락 & 퓨전국악 한마당

대금연주자 조철현씨 등 무대에

내일 오후 나주 금성관 앞마당서

나주에서 흥겨운 국악 공연이 열린다.

10일 오후 2시 나주 금성관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시나위 가락 & 퓨전국악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대금연주자 조철현(사진)씨가 주축이 돼 꾸리는 무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 산조 준보유자인 조 씨가 나주에 동지를 틀면서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나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의기투합, 행시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조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시나위 더듬 가락인 ‘강백천류 대금산조’를 들려준다.

또 조씨의 대금과 키보드·색소폰이 어우러져 ‘보리밭’, ‘울어라 엘충아’ 등 가요, 팝송, 영화음

악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또 전남도립국악단의 대북공연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19일, 8월 21일, 10월 16일 세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은혜로…나눔으로… 이웃사랑 50년

광주 남광교회 설립 50돌 맞아 기념행사 다채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교회(담임 목사 정영철)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은혜로 50년 사랑으로 50년’을 표어로 새로운 사명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50주년 기념위원회(위원장 최평웅 장로)를 조직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또 다가을 100주년을 향한 비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광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교회본당에서 기념예배와 예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웃사랑 실천, 기념부

증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남광교회는 1960년 4월 10일 당시 이승모장로 집에서의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렀으며 제1대 염용택 목사를 이어 이인국, 김달원, 지원원 목사를 거쳐 5대 정영철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문의 062-225-25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국제음악제 참석한 교토챔버오케스트라 고바야시 단장



솔리스트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오케스트라들은 자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연 횟수도 많고, 기획력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지휘자 마사키 이부라씨는 “스트라빈스키의 ‘댄스 콘체르토’는 우리가 사랑하는 레퍼토리”라며 “광주 클래식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교토필하모닉챔버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플루티스트 필립 피에를르 등과 협연무대를 갖게 되며 13일에는 우미부에플루트 오케스트라가 출연, 플루티스트 김영미, 피아니스트 서영화씨와 무대를 꾸민다. 문의 062-226-2030.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주자들과 베토벤 곡 연주

어떤 화음 낼지 벌써부터 기대”

11~13일 광주문화예관에서는 제2회 광주국제음악제가 열린다. 이 음악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진행하는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지역 연주자들과 함께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는 데 어떤 화음을 만들関わ는지 기대됩니다. 이번 공연을 기회로 한국과도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공연을 갖는 교토필하모닉챔버오케스트라의 아카리 고바야시 단장은 “이번 무대가 한국에서 하는 첫번째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렌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창단된 교토필하모닉

오늘은 우리 가곡부르는 날

호신대 티브라운

김소정(1)씨가 만든 ‘사랑은 모닥불에 잠기고’와 ‘칠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소프라노 노현선씨의 목소리로 역시 김씨의 곡인 ‘푸른 사랑’과 ‘신록’을 감상한다. 또 참가자들이 ‘그집앞’, ‘그네’, ‘보릿고개’ 등 친숙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진다.

광주우리가곡부르기는 매달 두번



제주 금요일 함께 모여 한국 가곡을 나누는 단체로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차와 먹리를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cafe.daum.net/gjkrson.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시나위 가락 & 퓨전국악 한마당

대금연주자 조철현씨 등 무대에
내일 오후 나주 금성관 앞마당서

나주에서 흥겨운 국악 공연이 열린다.
10일 오후 2시 나주 금성관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시나위 가락 & 퓨전국악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대금연주자 조철현(사진)씨가 주축이 돼 꾸리는 무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 산조 준보유자인 조 씨가 나주에 동지를 틀면서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나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의기투합, 행시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조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시나위 더듬 가락인 ‘강백천류 대금산조’를 들려준다.

또 조씨의 대금과 키보드·색소폰이 어우러져 ‘보리밭’, ‘울어라 엘충아’ 등 가요, 팝송,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또 전남도립국악단의 대북공연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19일, 8월 21일, 10월 16일 세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음악제 참석한 교토챔버오케스트라 고바야시 단장

“광주연주자들과 베토벤 곡 연주
어떤 화음 낼지 벌써부터 기대”

11~13일 광주문화예관에서는 제2회 광주국제음악제가 열린다. 이 음악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진행하는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지역 연주자들과 함께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는 데 어떤 화음을 만들関わ는지 기대됩니다. 이번 공연을 기회로 한국과도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공연을 갖는 교토필하모닉챔버오케스트라의 아카리 고바야시 단장은 “이번 무대가 한국에서 하는 첫번째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렌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창단된 교토필하모닉

광주가 관객하는 거제맛, 안정적인 영업, 소자본 창업

제주도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다. 주제는 ‘제주도민회관 주민공연 달馨나들이’로, 1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출신 작곡가 김소정(1)씨가 만든 ‘사랑은 모닥불에 잠기고’와 ‘칠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소프라노 노현선씨의 목소리로 역시 김씨의 곡인 ‘푸른 사랑’과 ‘신록’을 감상한다. 또 참가자들이 ‘그집앞’, ‘그네’, ‘보릿고개’ 등 친숙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진다.

광주우리가곡부르기는 매달 두번